

한겨울의 추위는 기승을 부려도

추운 겨울날씨가 한창이다. 매향 추위가 엄습하는 계절이지만 평양의 곳곳에 멋지게 꾸러진 공원들은 런던 겨울방학을 맞이할 수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로 흥성이고있다. 우리가 찾는 하신공원도 역시 그러하였다.

로라스케트장은 유치원과 마로부터 고급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앞을 다투어 찾고있어 초만원 을 이루고있었다. 주위를 달리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기교장을 신나게 오르고 내리며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학생소년

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마치도 능란한 교예사를 방불케 했다. 기교장에서 높은급《선수》들이 재주를 부릴 때 기본주로는 금방 로라스케트를 신고 뒤쫓기며 동무들의 손을 잡고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이제 좀 있으면 자기들도 주로를 쟁쟁 달리며 기교를 부릴수 있다는 자신심이 어 려있었다. 배구장과 통구장에서는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경기가 자못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었다.

회망찬 새해 주제108(2019)년 을 맞으며 공화국에서는 민족성이 넘쳐나는 여러 종의 달력들을 출판하였다. 이번엔 평양출판사에서 아름다운 색깔과 독특한 무늬, 기발한 형태로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청자를 소개한 달력을 만들어 내놓았다. 섬세한 형상으로 청신함을 더해주는 청자진사야이, 포도부늬박이조분박모양주전자와 받치개, 청자오리, 나비, 버들부늬박이병도 그려하지만 청자참대새김부늬 병과 청자학, 구름부늬박이 병 등을 소개한 달력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한다. 이와 함께 백두산 향도봉



전문선수들 못지 않게 처 냉기와 반기, 막기동작들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술에 의한 공격조직으로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는 배구경기장도 그려했고 능란한 배물기와 연락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통구장에서도 겨울의 추위쯤은 아랑곳없었다. 이번이 아니었다. 바드민턴경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과 뽀얀, 종합유회기재들에서 좋아라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이제몸체 안겨왔고 어머니들과 함께 한살, 두살잡이 어린이들의 모습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들은 공원들마다에 갖 걸음마를 맨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그네까지 갖추어져있어 해빛쪼이기도 할겸 그네도 태울겸 자주 공원에 나오곤 한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등 금강산화장품들을 소개한 달력은 녀성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밖에 외국문출판사와 조선로리협회에서는 모양과 색깔, 맛과 향기가 독특한 여러 로리들을 소개한 달력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백과사전출판사에서 내놓은 세계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김치를 다종다양하게 소개한 달력도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한창두장 새해의 달력을 번져갈 때마다 해내의동포들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올해도 통일에국의 길에 한마음 다 바쳐갈 마음속결의를 가다듬게 될것이다.

올해의 절기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여오던 력서는 달의 모습변화에 기초하여 만든 음력(태음력)이었는데 음력은 계절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음력에 태양의 년주운동을 반영한 24절기를 설정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동지로 부터 시작하여 해길을 12등분한 절을 중기라고 하고 중기와 중기사이를 절기라고 불렀으며 여기에 계절에 맞는 적합한 이름을 붙이고 12개의 중기와 12개의 절기를 합하여 24절기라고 불렀다. 24절기에는 립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립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립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립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 있다. 올해의 절기는 다음과 같다.

소한 1.6.	대한 1.20.
립춘 2.4.	우수 2.19.
경칩 3.6.	춘분 3.21.
청명 4.5.	곡우 4.20.
립하 5.6.	소만 5.21.
망종 6.6.	하지 6.22.
소서 7.7.	대서 7.23.
립추 8.8.	처서 8.23.
백로 9.8.	추분 9.23.
한로 10.8.	상강 10.24.
립동 11.8.	소설 11.22.
대설 12.7.	동지 12.22.

본사기자

친화절경 금강산에 겨울이 왔다. 겨울이든 온 산이 눈꽃과 얼음기둥으로 덮여 《개골산》이라 불리는 조선의 명산—금강산! 하얗게 내린 눈은 천하를 은빛세계로 물들이면서 금강산의 산악과 계곡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웅장한 재래를 뽐내며 독특한 미를 보여주는 겨울의 구룡폭포의 모습은 볼수록 장판이다. 백설을 이고있는 금강산의 절경과 어울려 그 모습 더더욱 두드러져보이는 한겨울의 구룡폭포는 아홉마리의 룡이 타래를 치는듯싶고 하늘을 떠이고있는 하나의 거대한 흰 기둥같이 보여 그 신비감을 더해주고있다. 겨울의 태양이 밝게 비치

는 삼일포가 손저어 부르고 그 옛날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천선대의 바위우에는 추위를 떨치고 잔술이 푸르려 잔술아래에는 파란 이끼가 빛을 뿌린다. 어디 그뿐인가. 금강산의 일만이 친봉우리도 추위에 움츠림없이 환넉던인 머리를 번쩍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중하고있으며 하얀 서리꽃을 활짝 피우고있다. 본사기자



어느 한 나라에서 18~32살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조사하는 과정에 인류의 정신활동과 수명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에 기초하여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극력 많이 쓰고 신체단련을 많이 하며 기쁨이 많은 음식을



적게 먹을것을 권고하였다. 연구과정에 발견된데 의하면 젊었을 때 문제고찰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고 사유가 간단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1.7살이었지만 사 고활동이 활발했던 사람들은 88.5살에 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조로성치매증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연구자들은 《내뇌는 사람의 수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사색과 수명

주제 108(2019)년 새해를 맞아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공화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새형의 케도전차기 시대의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배경으로 새해를 즐겁게 맞고있는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을 함박눈이 내리는 설경풍속에 형성

주제 108(2019)년 새해우표가 나왔다

우표는 시대를 생생 달리는 멋진 케도전차를 가리키는 아이들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바, 엄마들이 만들어낸 새형의 케도전차라고 이야기해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제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가



새해의 덕담

우리 민족의 오랜 풍속에 새해하러 다니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면 새해를 축하하고 새해에 일이 잘되기를 축원하였는데 이때 서로 주고받는 말을 《덕담》이라고 하였다. 덕담은 친구들사이에서 《새해에는 아들을 보게나.》, 《새해에는 소년 성취하기를 바라네.》 등과 같은 말로 오갔다. 웃사람이 아래사람의 새해를 받을 때에는 《올해도 가족의 화목을 바라네.》, 《새해에는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게나.》라고 하였다.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은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었다. 오늘에 와서 덕담은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 서로의 사업과 생활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의 친근한 인사말을 나누는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사기자

《옥편》이 장검인줄 알고

한자의 운에 밝은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집의 하인들과 말하는 것도 늘 운에 맞추어하였고 하인들이 틀리게 말하면 바로잡아주곤 하였다. 어느날 밤 누룽이 달려와 《도적이 들어왔소이다.》고 알렸는데 너무 바빠 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 그러자 선비는 《평성운자 도적이냐 거성운자 도적이냐? 빨리 내 《옥편》을 가져오너라!》하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들은 도적은 《옥편》을 그 어떤 장검과 같은 무서운 쟁기인줄 알고 출항망을 놓았다. ※ 평성, 거성—사성(네가지 소리가락)의 일종

사화

개성고추장 (1)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조선봉건왕조 중엽 송도라고도 불리우는 개성류수부의 송악산기슭에 사는 김씨성을 가진 백성집에서는 청제비가 날아들자 경사가 났다. 한것은 일곱대째인지 여섯대째라고 하던지 하여간 간들간들 외독신으로 대를 이어오던 이 집안에 년년생으로 다섯번째자식을 그것도 꼬투리를 달고나온 아들자식을 또 보게 된것이었다. 칠순이 난 이 집안의 어른 한테는 중손자요 친할이 난 그의 아들한테는 손자인데 중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다섯, 이렇게 네대가 한지붕아래서 한가마밥을 먹으니 받는 친척이 없어 외롭다던 김씨집이 오늘도 열한식구라는 큰 식솔이 되어 벽작벽작 웃고 떠들며 이제 사람사는 재미라며 자랑하는것이였다. 잠시 이 집안을 뜰어보면 재력이란 말을 번질수조차 없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구차한 살림이지만 언젠 한번의 상해 놀아친 언성이 밖으로 새어나온적이 없고 웃어른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아랫사람은 웃어른을 공경하기를 12달이 하루같이 온 동네의 부러움을 모으고있었다. 이런 화려한 집안에 열한 번째의 새 식솔을 맞이했으니 이제 큰 경사가 아니겠

니 집안에서 동동 떠받들리게 되였다. 장씨는 일출살물 집살림만 잘하는것이 아니고 결단도 남정네만 못지 않았다. 시집온지 한달만에 뜨뜻한 안방에 끓은것들이 든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시할아버지의 마음을 끝내 움직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는 웃방에 든것만 보아도 장씨의 생각하는 품이나 결단을 능히 엿볼수가 있는것이였다. 장씨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 자연 그 자식들도 집안의 사랑을 받아 첫째, 둘째아들들은 안방에서, 셋째, 넷째는 사랑방에서 날마다 웃음꽃을 피운다. 그러니 장씨가 이제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장씨는 늘 고심하고있는것이 한가지 있었는데 누주도 아직은 알수가 없는 것이였다. 누가 말하기를 꽃뽕것을 엮고제 보았는데 벌써 열매가 맺혔다고 하더니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도 가고 겨울이 와서 하늘에서 흰눈이 펄펄 내리고있었다. 이날 저녁도 장씨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열한 식구를 안고 누역으로 나가 설것이로 소문이 날만 했다. 게다가 시집온지 10년도 못되어 다섯아들까지 쳐 낳아주었으

《응, 앞집 천식이 하는 말이 재령에선 버가율이 끝나자 갈뽕을 일쿠어 눈을 푼다고 하오. 거기엔 무연한 갈뽕인데 푼을 쌓고 물을 끌어대면 그야말로 기막힌 옥담이라누나. 그래서인지 쌀 무류만 팔아도 며칠 먹을 쌀을 준대. 내 올해 품팔이를 변변히 못했는데 재령 가서 벌지 못한 봉창을 할가 하오.》

《젊어서 고생은 금주기도 못 산다고 했나이다. 이제 잘살 날이 오겠지요.》

《젊어서 고생은 금주기도 못 산다고 했나이다. 이제 잘살 날이 오겠지요.》

《젊어서 고생은 금주기도 못 산다고 했나이다. 이제 잘살 날이 오겠지요.》

《여보, 내 한마디 하라오?》

《한참만에 남편 근달은 피곤에 물린 안해를 인차 잠들수 없게 한것이 미안하여 겨우 입을 열었다.》

《어서 말씀하시와오.》

《다른건 아니고 인차 재령에 갈가 하오.》

《재령에요?》

